

이수경 : 내가 너였을 때

김인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 상처 ( 傷處 )

2004 년경 < 매일 드로잉 > 을 그릴 무렵부터 이수경의 작품은 어떤 근원적 지점에 닿기 시작했던 것 같다 . 제목 그대로 매일매일 반복해서 그려나간 그녀의 드로잉에는 , 어여쁜 여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슬픔을 안은 채 크리스탈 같은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 성녀 ( 聖女 ) 마리아 같기도 하고 , 동 화 속의 신데렐라 같기도 하고 , 한국 설화 속의 바리데기 같기도 한 이 여인들은 , 본래 가장 고귀한 존 재이지만 세속적으로는 가장 천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 지극히 슬프면서도 지극히 아름답고 , 매우 여리지만 동시에 강력한 그런 이미지들이었다 . 그러한 '극단'들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경지는 분명 특별한 것이다 .

그런데 이들 이미지들에는 이상하게도 근원을 알 수 없는 깊은 '상처'가 투영되어 있었다 . 한동안 이수 경의 작품에서 일종의 '상처'를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중첩된 도자기들의 불안한 형태 위 에서 기묘한 자세를 취한 채 아슬아슬 묘기를 부리는 여인들 (< 묘기여인 >(2005)) 의 모습에서도 , "다 태워버리겠다"는 심정으로 그렸다는 < 불꽃 >(2008) 의 잡탕스러운 이글거림에서도 , 상처를 기록하고 상처를 떠안고 심지어 스스로 상처를 내기도 하는 일종의 '고행'의 순간들을 읽을 수 있었다 . '고행'은 어쩌면 , 처음부터 미완성인 채로 태어난 인간이 숙명처럼 받아들여야만 하는 과제인지도 모른다 .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것이 아니라 , 상처를 안고 오히려 상처를 사랑해 버림으로써 , 고행은 점차 높은 경지를 향해 간다 . < 뺨눈물 >(2011) 을 제작할 때에도 그러한 일종의 '고양 ( 高揚 )'이 일어난 것일 까 ? 이 작품은 호주 시드니의 , 원래 감옥으로 쓰였던 한 공간 (National Art School Gallery) 에 설치되기 위해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었다 . 여성 죄수들의 통로가 되었던 반지하의 어둡고 습한 석벽 ( 石壁 ) 구조물 안에 , 작가는 새하얀 여인 조각상을 안치 ( 安置 ) 해 놓았다 . 무방비상태로 양손을 벌린 채 뺨눈물을 뚝뚝 흘리는 소녀에게 정성스럽게 베일도 씌우고 ... 원래 그 조각상에 이르는 좁은 길에는 기도하는 손모양의 양초 조각이 줄지어 불을 밝히고 있었다 . 죄수들의 도시 시드니의 오래된 감옥에서 , 세속의 죄가 과연 얼마나 중 ( 重 ) 한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 많은 여인들이 그 석벽 통로를 지나며 고행을 생활로 삼았으리라 . 작가는 다만 그들을 위해 지극히 순결하고 아름다운 조각상을 헌정하고 싶었던 것이다 .

또 다른 작품 < 눈물 >(2012) 도 특별한 제작 배경을 지녔다 . 이 작품은 원래 서울의 고궁 중 하나인 덕수궁 ( 德壽宮 ) 의 석어당 ( 昔御堂 ) 에 설치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 덕수궁은 조선의 황제가 일본의 제국주의에 맞서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역사를 고스란히 안은 장소이고 , 특히 석어당은 한때 조선의 어느 한 ( 恨 ) 많은 왕비 ( 인목대비 ) 가 유폐 ( 幽閉 ) 되어 세월을 보냈던 곳이기도 하다 . 왕조 의 비극과 원한의 현장에 , 이수경은 눈부시게 빛나는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놓았다 . 약

3,000 개의 LED 전구들로 만들어진 거대한 눈물의 형상은 오래된 목조 건물의 텅 빈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 슬프고 또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이수경의 손을 거치면 '상처'가 오히려 빛나는 '별'이 되었다. 수많은 서양 의 별자리 신화가 탄생한 배경처럼 말이다.

### 소생 (蘇生)

그런 방식으로 상처받고 헤매이다 거의 죽어가던 것들이 그녀의 손에서 되살아났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동화, 전설, 설화, 심지어 종교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온갖 종류의 가엽고도 씩씩한 영혼들이 불러들어졌다. 한 때 수많은 인간의 사연을 들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느라 피곤에 지쳤음에 틀림없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도 등장하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으면서도 온갖 고초를 겪으며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사약을 찾아다니던 바리데기도 되살아난다.

< 가장 멋진 조각상 >(2006-) 에서 작가는 공자, 노자, 마리아, 예수, 부처, 마호메트, 가네샤의 눈, 코, 입, 얼굴형, 상반신, 하반신을 각각 해체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이상적으로 아름다운 부분을 조합한 새로운 '신상 (神像)'을 만들어 내었다. 종교가 진정한 '효력'을 잃은 오늘날에도 인간 각자 의 마음을 지배하는 '이상적인 것들'의 정체는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이 조각상을 통해 한 때 신성했던 존재들이 '재조합'되어 소생하는가 하면, 아름다움의 전형을 재창조하려는 관객의 감각도 다시 일깨워 진다.

그러더니 작가는 또 이번에는, 그런 신상 (神像) 들이나 바리공주에게 "이제 그만 다들 폭 쉬라"고 위로하며 잠을 재워 버린다 (< 모두 잠든 (All Asleep)>(2014)). 인간을 대신하여 고행의 길을 걸었던 종교의 성인들이나, 상처를 승화하며 고행인 줄도 모르고 고행의 길을 자처했던 바리공주나, 이제는 지칠 법도 하지 않은가. 이들을 바라보며 상처를 달랬던 수많은 인간 영혼들도 이제 이들을 잠들 수 있도록 놓아주자. 이들로 하여금 할 일 없이 잠들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영혼에도 진정으로 휴식을 주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듯하면서도 웃기는 연출인데, 바로 이러한 특징이 이수경 작품의 묘미이다.

상처받은 채 거의 죽을 뻔한 운명에 처해 있던 것들 중에는 깨어진 도자기 조각들도 있었다. 한 때 도자기의 나라로 유명했던 한국에는 여전히 전국 방방곡곡에서 숙련된 장인들이 정성을 다해 도자기를 빚는다. 그러나 가마에서 구워져 나온 후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인 스스로의 손에 의해 파기된 도자기 파편들. 이들이 모여져서 이수경의 손을 거쳐 작품 (< 번역된 도자기 >) 으로 소생 (蘇生) 되는 것이다. 이미 태생에서부터 '결함'을 안고 있는 이 파편들은 금분으로 이어 붙여져도 돌연변이처럼 왜곡되고 일그러진 형태로 완성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 (不具) 와도 같은 그 존재가 소생될 때 작가도 관객도 일종의 '희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왜일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새 생명을 얻은 것들은,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기 이전의 그것이 아니다. 어떤 새로운 존재로 둔갑 (遁甲) 하는 것이다.

## 둔갑 (遁甲): 내가 너였을 때

극단적인 슬픔과 극단적인 아름다움이 통하고, 가장 여린 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 되며, 가엽고 불쌍한 것이 즐겁고 유쾌한 것으로 탈바꿈되는, 그러한 순간에 '둔갑'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둔갑'은 시간을 매개로 성립되기도 하는데, 즉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내가 되거나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상정해 볼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만약 '주체'에의 인식마저 무너뜨려질 수 있다면, 내가 과거의 내가 되거나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수경의 최근 작품에 특히 이러한 '둔갑 실험'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 전생퇴화그림 >(2015) 도 그러한 예이다. 전생의 내가 어디론가를 헤매이고 모험을 떠나며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는 그런 이야기들 ... 어찌 보면 있었을 법도 하고, 다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그런 사연들이 담긴 핑크빛 아크릴화들은 형식상으로도 매우 유치찬란하여, 현생의 미술계에서 통용되는 화법(畫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쩌면 역으로 지금 우리가 흔히 감상하고 유통시키는 작품들 이야말로 지극히 짧은 인생의 토막 난 시간 속에서나 유효한 '취향'인 것은 아닐까.

현생의 자아가 전생의 자아가 되는 실험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 < 그림 배우기 (Learning from Masters)>(2015) 연작이다. 이수경은 Fuzhou 출신의 원로 작가 Liu Chiwai(1912~) 이나 Hsu Jia Hung 출신의 원로 작가 Wang Pau-Youn(1912~) 의 과거 작품들을 따라 그리기도 하고, 한국의 대구지역에서 활동했던 화가 장석수(1921-1976)의 1955년작 < 광녀 (狂女)> 를 열심히 모사하기도 한다. 이 원로 대가들은 모두 훌륭한 화가였음에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대단한 대중적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들의 작품을 새삼스럽게도 이 시점에 재소환하여 소생시키는 동안, 이수경은 한때 성실하고 훌륭하게 화가의 삶을 살았던 이들 모두에게 합당한 경의(敬意)를 표한다. 동시에 그녀는 하나의 온전한 세계를 담은 예술가의 작품이 '시대'의 율가미에 묶인 채 평가되고 소비되는 예술계의 전반적인 행태를 뒤틀고 비꼬기도 한다. 이수경이 바라보는 예술의 세계에는 자주 '경의'와 '조소'가 공존한다.

앞으로 작가의 소망은 이렇게 그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떠돌아다니며, 연로하신 원로 작가들을 만나서, 이제는 낡은 것으로 인식되어 버린 그들의 화법(畫法)을 배우는 것이란다. 또한 여기저기 각 지역의 전통춤 계승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로부터 춤사위를 한가락씩 배우고도 싶단다. 한국의 무용가 이정화로부터 오랫동안 배워왔던 전통 한국무용도 이제 제법 자연스러워져서, 타이페이 전시 개막 때는 무용 퍼포먼스도 펼쳤단다. 대만의 전통 경극 퍼포머가 건물 중앙 로비에서 박진감 넘치는 동작을 선보이는 동안, 이수경은 관객에게 보일 듯 말 듯한 거리(距離)한 구석에서 한국의 전통 소복(素服)을 뒤집어쓴 채 이른바 "그림자 댄스"를 추었다.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로 계속 자아를 무화(無化)시키는 과정, 내가 점점 더 소멸해가고 그래서 내가 비로소 네가 되는 순간에 이르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일 것이라고 이수경은 말한다.

둔갑은 끝이 없으며, 명랑하고 유쾌한 일이다. 그녀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무엇으로 더 둔갑할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그녀의 둔갑술이 예술의 시공간적 정의를 확장하고 더욱 풍부하게 하리라는 사실만큼은 확실히 보인다.